

# 화장실 사용 1석 5조 양변기 및 세면대 출시

**세**면대에서 사용된 세면수를 공급받아 변기의 세척수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 절약형 양변기가 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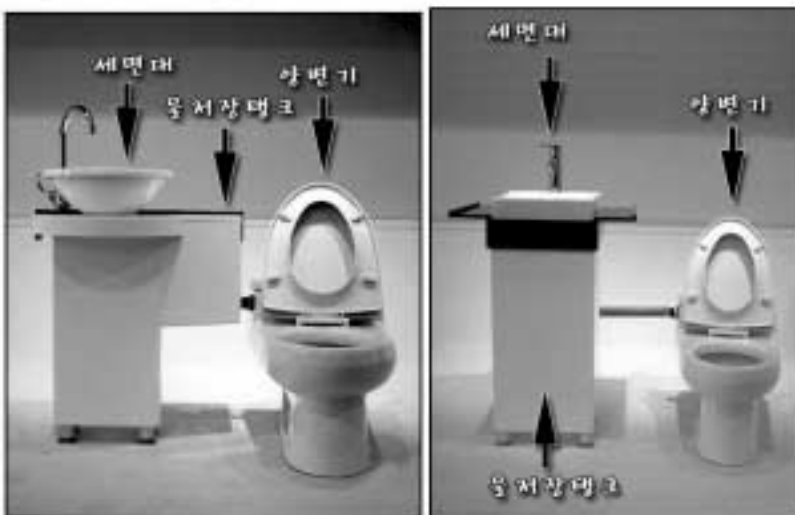
(주)물사랑(대표 임상호)은 세면수를 그냥 버리지 않고 변기의 물내림으로 재사용하는 에너지절약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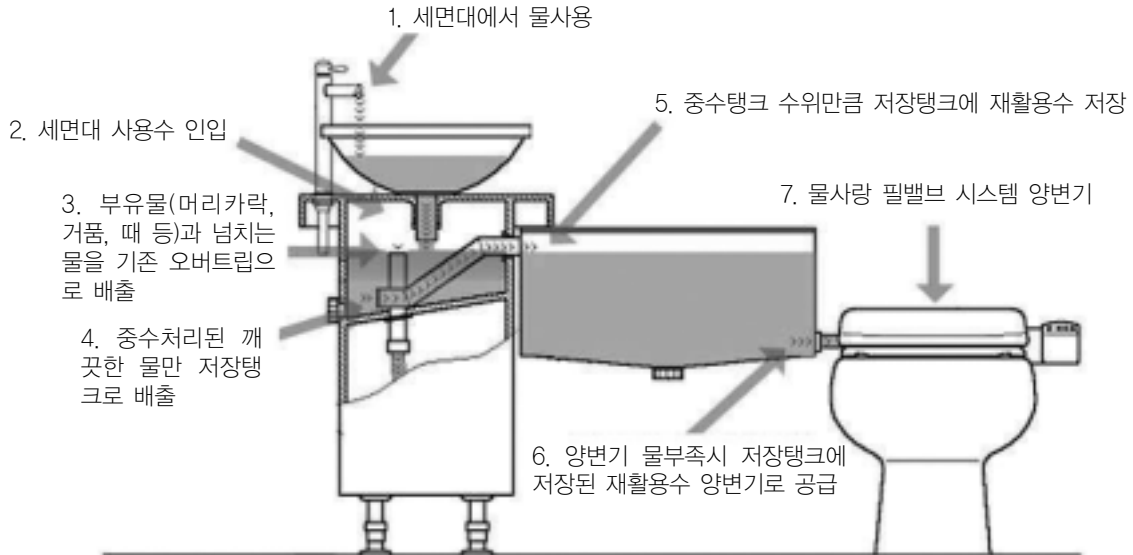
양변기를 개발함으로써 버려지는 세면수(1인당 1일 물 사용량 약 365ℓ)의 9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욕실에서 쓰고 남은 물을 재활용하는 '중수재활용 양변기' 장치는 세면대에서 쓴 물을 걸러 변기의

수조로 보내 재활용(약8.5ℓ)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재활용된 물을 사용한 뒤 마지막에 수돗물(약 1ℓ)이 나와 세척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1일 1인당 물 사용량 약 365ℓ 중 양변기 사용량 50ℓ에서 최고 45ℓ를 절감하여 양변기 사용량의 90%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절약 양변기 절수 및 하수 효





\* 위 도면은 MS시스템 전체 도면으로 실 제품은 저장탱크가 따로 필요없이 세면대와 일체화된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과 최고 90%라서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며 세계특허 및 실용신안 등 70여건으로 기술집약적인 제품이다.

(주)물사랑이 개발한 중수재활용 양변기는 물을 자동으로 정화해 재활용하는 세계 최초의 특허제품으로서 70여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이 집약되어 있다.

이 제품은 자동분리장치를 통해 머리카락과 때 등은 하수구로 자동 배출되며, 일정하게 정화된 중수(화장실 세면대의 물 등)만 저장탱크에 저장되어 대·소변시 양변기에서 재활용된다.

그러나 중수 처리과정에서 전기등의 동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효율을 높였다.

특히 재활용수가 배출된 뒤 세척수 1ℓ의 수돗물로 행굼으로써 소비자는 재활용수가 아닌 기존 변기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효과가 있다.

임상호 (주)물사랑 대표이사는 “중수재활용 양변기는 약 절수(85%) 효과 뿐만 아니라 세균감균(58%), 하수도(85%), 설비절약(50%), 절전(85%) 등 ‘1석 5조’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호 대표는 또 “현재 제품에 대한 해외 등 관련업계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며 “해외상담 및 계약이 이어지고 있어 자체공장으로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물사랑은 벤처기업으로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벤처디자인상 수상, 특허상 수상, ISO 9001 품질인증 획득,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05년 정부우선구매제도에 선정되었으며 구매담당자 감사원 감사와 자체 감사가 면책되며 성능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